



남녀 간 노후준비 차이

이상우 수석연구원

19세 이상 남녀 간 노후준비 실태를 비교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 준비율과 준비능력이 낮은 반면, 여성의 자녀 의존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수입원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근로소득, 자녀지원, 정부보조 항목에서 우리나라 남녀 간의 차이가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노후 준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은 각각 71.3%, 59.8%임
- 구체적인 노후준비 방법은 <표 1>과 같이 국민연금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률이 높고, 예금 적금과 사적연금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 설문조사 결과(19세 이상)

(단위: %)

구분	준비하고 있음								
		소계	국민연금	예금/적금	사적연금	기타 공적연금 ¹⁾	부동산 운용	퇴직급여	기타
남성	71.3	100.0	59.3	14.6	7.5	9.1	4.9	4.1	0.5
여성	59.8	100.0	46.4	23.7	12.3	8.5	6.0	2.9	0.2

주: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자료: 통계청(2017. 11), 「2017년 사회조사 결과」

■ 남녀 간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이 여성은 남성보다 준비능력이 없거나 자녀 의탁의 응답률이 높음

-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아직 노후준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노후 준비 못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19세 이상)

(단위: %)

구분	준비능력 없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	아직 생각 안함	자녀에게 의탁
남성	37.6	34.4	22.6	5.2
여성	40.1	32.6	14.5	12.6

주: 기타 항목은 제외

자료: 통계청(2017. 11), 「2017년 사회조사 결과」

■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생활 주요 수입원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결과 근로소득, 자녀지원, 정부보조 항목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은 조사대상 국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이 여성보다 17.8%p 높음
- 자녀지원은 다른 국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거나 미국의 경우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17.0%p 높음
- 정부보조는 다른 국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거나 응답률이 미미한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3.5%p 높음

〈표 3〉 주요국 노후생활 주요 수입원 설문조사 결과 비교¹⁾

(단위: %)

국가	성별	근로 소득	공적 연금	사적 연금	예·저금	재산 수입	자녀 지원	정부 보조
한국	남성	47.8	21.8		4.5	7.2	10.7	8.0
	여성	30.0	18.0		5.6	7.2	27.7	11.5
일본	남성	29.8	66.1	1.4	1.0	0.4	1.0	0.2
	여성	18.1	74.7	0.8	0.5	1.5	1.2	1.3
미국	남성	25.6	50.8	13.7	2.3	0.6	4.1	1.2
	여성	19.6	59.0	11.3	3.3	2.9	0.8	1.2
독일	남성	12.2	75.7	4.1	1.1	2.9	1.6	2.3
	여성	8.8	78.3	2.6	3.2	0.9	1.6	1.2

주: 1)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

2) 기타 항목은 제외

자료: 1) 한국은 통계청(2017. 11), 「2017년 사회조사 결과」

2) 기타 국가는 日本 内閣部(2016), 平成27年度 第8回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結果

■ 향후 근로소득, 자녀지원, 정부보조 항목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노후 준비 차이와 심층적인 원인 분석, 남녀 간의 노후준비 격차 해소 장치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kiri**